

氣功중 東醫寶鑑의 內景에 관한 研究

김 태 우* · 윤 증 화**

I. 緒 論

最近 韓醫學界에는 새로운 分野인 氣功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¹⁾. 氣功과 道敎에 대한 研究가 韓醫學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듯 學術的 意味로서 그리고 臨床的인 面²⁾까지 研究되기 始作한 것은 最近에 나타난 現狀이다. 이미 豫防醫學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韓醫學系에 이러한 現狀이 나타난 것은, 現代 社會人들 사이에서 健康의 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豫防醫學的인 意味를 가지는 韓醫學의 重要性은 過去의 書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의 內容은 대체로 道敎醫學에 관한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黃帝內經素問》에서 〈上古天真論〉⁴⁾은 제 일 序頭에 該當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內容은 養生에 관한 內容이 主를 이루고 있고, 《東醫寶鑑》도 〈內景篇〉을 가장 첫 머리에 두고 있는데 이 部分도 道敎醫學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氣功과 道敎醫學의 研究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直接的으로 修練과 治療를 하는 方法에 관한 研究⁵⁾와 道敎에서 보는 身體觀에 관한 研究⁶⁾, 歷史學的인 研究⁷⁾ 등 그 數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既存의 韓醫學이나 道家的인 어느 한 方面으로 치우친 立場에서의 研究보다는 兩者를 서로 比較 分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著者는 韓醫學의 主流를 이루고 있고 現 韓醫學과 道敎醫學의 中間 役割을 하고 있는 《東醫寶鑑·內景篇》중 內景⁸⁾에 대

- 1) 김기욱 著: 의료기공, 서울, 도서출판 단비, 1995.
- 2) 김기욱 著: 上揭書.
- 3) 林中鵬 著: 中華氣功學, 北京, 北京體育學院出版社, 1989.
- 4) “上古之人 其知到者…… 故 能形舉神俱而 盡終其天年度百歲及去”
- 5) 김기욱 著: 上揭書.
- 6) 都玟淳 著: 上揭書, p. 130.
- 7) 都玟淳 著: 上揭書, p. 111.

*, ** 東國대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한 意味를 研究하고 이와 연관시켜, 그곳에 나와 있는 三丹田과 三關⁹⁾, 五臟六腑¹⁰⁾의 形態, 三尸¹¹⁾와 九蟲¹²⁾, 傳屍¹³⁾ 그리고 道家에 나오는 身神¹⁴⁾을 既存 韓醫學의 立場과 道家의 立場을 서로 比較하여 研究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內 景

東醫寶鑑을 보면 內景編 제일 첫 章에서는 身形臟腑圖¹⁵⁾를 볼 수 있고 五臟六腑 部分을 보면 五臟圖가 그려져 있다. 그밖에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三尸와 九蟲, 傳屍 등이 나와있다. 뿐만 아니라 類經圖翼¹⁶⁾, 醫學輯要¹⁷⁾, 秘本十四經脈穴歌¹⁸⁾, 醫部全錄¹⁹⁾ 등의 文獻에도 內景圖²⁰⁾ 및 五臟六腑圖가 그려져 있다.

이러한 內景圖 및 臟腑圖가 그려지게 된 意義를 解剖學的인 面 外에 다른 方法을 文獻의 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는 우선 말 그대로 內景이란 單語의 意味와 각 古典 文獻에 나온 內容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內景은 內視²¹⁾, 內觀²²⁾, 內照^{23, 24)}, 凝神²⁵⁾라고도 하며 辭典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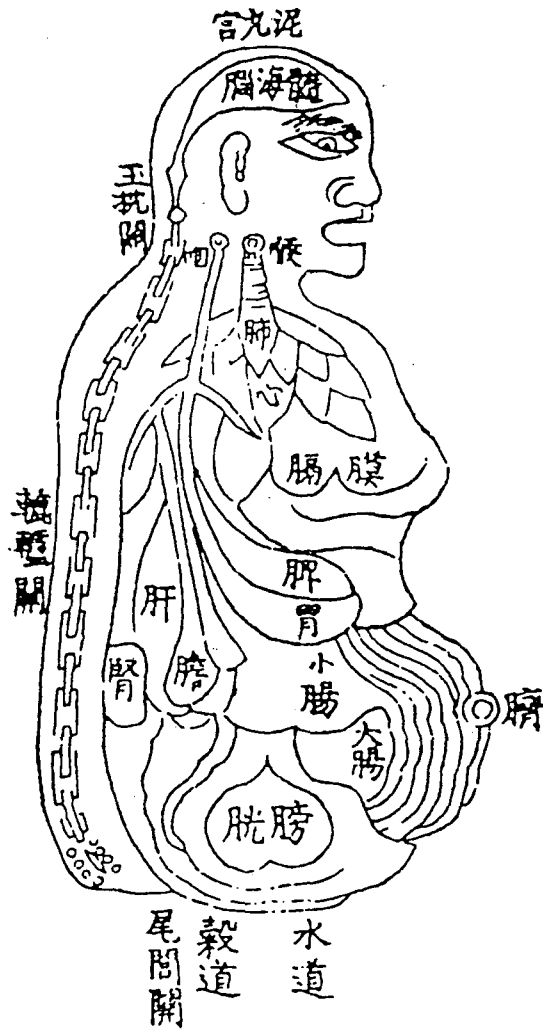
① 內臟과 腑의 生理功能, 病理變化의 外的 表現의 相互反映關係를 가리킨다.

② 思惟活動을 內向하여 意로써 臟腑組織을 觀察하는 것을 가리킨다²⁶⁾.

눈으로 보는 것은 본래 外觀을 향하는 것이 인데, 內視는 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깨닫는 것을 말한다. 內視는 道를 터득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²⁷⁾.

《太平經》에는 “眩目內視하여 마음을 안으로 다스리는 陰明反洞하여 太陽에 스며든다. 그리하여 안에서 道를 터득한다. 마치 火로

-
- 8)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13.
 - 9)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78.
 - 10)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34, 341, 350, 357, 364.
 - 11)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433.
 - 12)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434.
 - 13)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442.
 - 14) 都玟淳 著: 道敎와 科學, 서울, 比峰出版社, 1990, p. 132.
 - 15)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
 - 16) 張介賓 著: 類經圖翼, 서울, 대성출판사, 1990, p. 83.
 - 17) 宋点植 著: 醫學輯要, 서울, 文耕出版社, 1991, p. 35.
 - 18) 吉元昭治 著, 都玟淳 譯: 道敎와 不老長生醫學,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2, p. 349.
 - 19) 陳夢雷 編著: 醫部全錄, 서울, 大成出版社, 1990, p. 47.
 - 20) 張介賓 著: 類經圖翼, 서울, 대성출판사, 1990, p. 83.
 - 21)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眞本內功秘傳 註譯 仙佛合宗, 서울, 서림문화사, 1994, p. 238.
 - 22) 呂光榮 註編: 中國氣功辭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8, p. 99.
 - 23) 呂光榮 註編: 中國氣功辭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8, p. 99.
 - 24)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眞本內功秘傳 註譯 仙佛合宗, 서울, 서림문화사, 1994, p. 236.
 - 25) 呂光榮 註編: 中國氣功辭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8, p. 99.
 - 26) 呂光榮 註編: 中國氣功辭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8, p. 99.
 - 27)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眞本內功秘傳 註譯 仙佛合宗, 서울, 서림문화사, 1994, p. 238.



〈東醫寶鑑·身形臟腑圖〉

써 안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다.”고 했다²⁸⁾.

《黃庭經·梁丘子注釋》에서는 “內는 心이고 景은 象이다. 外景은 日月星震의 象을 말함이고, 內景은 血肉, 筋骨, 臟腑의 象을 말

함이다. 心은 몸안에 있어 일체의 象을 관찰한다. 고로 內景이라 했다.”라고 나와있다²⁹⁾.

또한 《雲笈七篇·內丹》을 보면 聖人 셋이 말하는 內視란 “一心으로 集中하는 것이다.”

28)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眞本內功秘傳 註譯 仙佛合宗, 서울, 서림문화사, 1994, p. 238.

29) 呂光榮 註編: 中國氣功辭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8, p. 100.

라고 해서 氣功 修練時 意識活動을 目光으로 하여금 心, 肝, 腎 등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注視케 하는 것이라 했다. 단지 意로써 보는 것이다. 入定內視에 편하게 하기 위해 一般的 主張은 內視할때 두 눈을 가볍게 감고서 한다³⁰⁾.

《性命圭旨全書·元集》에 보면 內照圖가 나온다. 內照란 功法 修練중 入靜狀態에서 自身の 內臟을 觀察하는 것이다. 內照圖중 形象地는 五臟六腑 內臟의 形態를 그린 것인데 모두 內觀時의 狀態이다³¹⁾.

《仙佛合宗》에선 ‘回光內照’라는 것을 說明하기를 “目光을 거두어 들어 조용히 本性을 內視하는 하나의 가르침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凝神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그것 만으로 氣血에 注入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³²⁾.

《道言淺近說》에 凝神에 대하여 “맑은 마음을 거두어 들어 그 안에 넣는 것이다. 마음이 아직 맑지 않았을 때는 亂閉하지 말아야 하며, 먼저 자동자면하여 動이 돌아와 淸涼恬淡하면 비로소 氣血 속에 거두어 들인다.”라고 했고, 《청정경》에는 “慾心を 버리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神은 저절로 맑아진다.”고 했다.

2. 身 形

《東醫寶鑑》의 〈身形編〉을 보면 “背有三關³⁴⁾이라 하여 泥丸宮,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의 三關이 나와 있고, “丹田有三³⁵⁾이라 하여 “腦는 髓海이고 上丹田이라 하고, 心은 絳宮이로 中丹田이라 하며 배꼽 아래의 3치 되는 곳을 下丹田이라 한다.”고 나와 있고 身形臟腑圖에는 五臟六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道敎에서는 人間을 小宇宙로 보고 이를 自然 大宇宙와 같다고 보아³⁶⁾ 지금의 韓醫學³⁷⁾에서 보는 人間觀과 거의 비슷하다.

《抱朴子》에는 “한 사람의 몸은 한 개 나라의 形態와 같다. 가슴과 배 部位는 宮室과 같고 팔다리는 郊野와 같으며 뼈마디는 모든 관리들과 같다. 神은 임금과 같고 血은 臣下와 같으며 氣는 百姓과 같다. 자기 몸을 다스릴줄 알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였다³⁸⁾.

《道樞》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쭈쭈한 것과 같이, 人體도 心臟은 둥글고 腎臟은 쭈쭈하다. 하늘과 땅이 八方 4千里인 것과 마찬가지로 心과 腎과의 거리도 또한 八寸 四分이며 心과 腎은 天地에 比較된다”라고 되어 있다³⁹⁾.

또한 《素問》의 〈靈蘭秘典論〉에는 “心은 群主之官이니 神明이 생기고, 肺는 相傳之官이니 治節이 생기고, 肝은 將軍之官이니 謀

30) 呂光榮 註編：中國氣功辭典，북경，인민위생출판사，1988，p. 99.

31) 呂光榮 註編：中國氣功辭典，북경，인민위생출판사，1988，p. 99.

32) 伍守陽 著，昔原台 譯註：眞本內功秘傳 註譯 仙佛合宗，서울，서림문화사，1994，p. 236.

33) 伍守陽 著，昔原台 譯註：眞本內功秘傳 註譯 仙佛合宗，서울，서림문화사，1994，p. 236.

34) 許浚 著：上揭書，p. 10.

35) 許浚 著：上揭書，p. 9.

36) 都玟淳 著：上揭書，p. 130.

37) 金完熙，崔達永 共編：臟腑辨證論治，서울 成輔社，1990，p. 39.

38) 許浚 著，東醫研究所 譯：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8.

39) 都玟淳 編：道敎와 科學，서울，比峰出版社，1990，p. 130.

慮가 여기서 생기고, 膽은 中正之官이니 決斷性이 여기서 생기고, 顛中은 信使之官이니 喜樂이 여기서 생기고, 脾胃는 倉廩之官이니 五味가 여기서 생기고, 大腸은 傳道之官이니 變化가 여기서 생기고, 小腸은 受成之官이니 化物이 여기서 생기고, 腎은 作強之官이니 技巧가 여기서 생기고, 三焦는 決瀆之官이니 小便이 여기서 나오며, 膀胱은 州都之官이니 津液을 여기서 貯藏하였다가 氣化가 생기면 밖으로 내보낸다. 이 12之官은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잘해야 아래 機關도 편안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養生을 하면 오래 살면서 죽을 때 까지 危險한 일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⁴⁰⁾.

1) 丹 田

內丹術에서 몸을 爐에 비유하여 丹을 製造하고 그것을 貯藏하는 場所를 丹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上·中·下丹田으로 나눈다⁴¹⁾.

이것은 人身의 本이 되고 眞氣가 모이는 곳으로 《難經 66년》에는 “臍下 腎間動氣란 사람의 性命이고 十二經의 근본이다.”라고 하여 楊玄操 註에 “臍下腎間動氣란 丹田이다. 丹田은 사람의 根本이다.”하여 修練時 常用하는 意守부위이다. 실제로는 意를 지켜서 氣가 모이는 곳인데, 丹學에서 單純하게 丹田이라고만 쓸 때에는 下丹田을 가리킨다.

丹田을 가리키는 用語는 上·中·下丹田을 합쳐 수백여가지가 된다⁴²⁾.

丹田의 名稱은 晉代 皇甫謐의 《針灸甲乙經》에서 石門穴, 臍下二寸部位라 하였고, 《黃庭經》에서는 “回紫抱黃入丹田”⁴³⁾, “呼吸 虛間入丹田”⁴⁴⁾이라 하였으며, 《慧命經》에서는 丹田을 龍宮⁴⁵⁾이라 하였다.

《脈聖》에서는 “天機란 臍下 1寸 部位이다. 聖人이 下守하여 養胎仙하던 部位이다.”라 했다⁴⁶⁾.

《難經 註》에서는 “丹田은 性命之本으로 道士가 思神하고 比丘(僧侶)가 앉아 參禪하여 모두 眞氣를 臍下에 모은 것에서 비롯된다.”라 했다⁴⁷⁾.

《鍾呂傳道記》에서는 “丹田에는 세가지 있는데 上丹田은 神舍이고, 中丹田은 氣府이고, 下丹田은 精區이다. 精중에서 氣가 生하고 氣는 中丹田에 있다. 氣중에서 神이 生하고 神은 上丹田에 있다. 眞水, 眞氣가 합하여 精이 되는데 精은 下丹田에 있다.”라고 했다⁴⁸⁾.

晉代 葛洪의 《抱朴子》, 〈地眞篇〉에서는 “神들에게는 性과 字가 있고, 색깔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男子에게는 九分, 女子에게는 六分의 크기로 배꼽 밑 2寸 4分의 下丹田에 있다. 또 心臟 밑의 絳宮金闕宮, 즉 中丹田에도 있고, 兩眉間 1寸 들어간 明

40) 許浚 著, 東醫研究所 譯: 上揭書, p. 9.

41) 吉元昭治 著, 都玆淳 譯: 道敎와 不老長生醫學,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2, p. 367.

42) 呂洞賓 著, 李允熙, 高聖勳 共譯: 太乙金華宗旨,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 59.

43) 浙江省氣功科學研究會, 氣功雜誌編輯部主編: 中國氣功四大經典講解 《黃庭內景經》, 浙江省, 浙江古籍出版社, p. 228.

44) 浙江省氣功科學研究會, 氣功雜誌編輯部主編: 中國氣功四大經典講解 《黃庭內景經》, 浙江省, 浙江古籍出版社, p. 277.

45) 柳華陽 著, 李允熙 譯: 慧命經,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276.

46) 呂光榮 主編, 吳家駿 副編: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 144.

47) 呂光榮 主編, 吳家駿 副編: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 144.

48) 呂光榮 主編, 吳家駿 副編: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 144.

堂, 2촌의 동방, 3촌의 上丹田에도 있다. 이것은 道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代를 거듭하며 피를 마셔 맹세하고 口傳된 神의 이름을 전한 것이다”고 적혀 있다⁴⁹⁾.

《道藏》중의 〈金丹賦〉에서는 三丹田을 元眞이라 하고 사람의 三丹田을 하늘의 日·月·星에 對應 시키고 있다⁵⁰⁾.

《仙佛合宗》에서는 “神이 이미 純全하고, 胎가 이미 滿足하면 胎 속에서 마냥 머물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며, 즉 中丹田과 下丹田에서 부터 上丹田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⁵¹⁾.

《大成捷徑》에서는 “원신, 원기, 원정의 에너지는 각각 上丹田, 中丹田, 下丹田이라는 세 가지 重要 部分에 集中的으로 居住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에너지의 作用을 각각 神, 氣, 精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⁵²⁾.

《天仙正理》에서는 “丹田은 세개가 있는데, 氣는 中丹田에 있고, 神은 上丹田에 있고,

精은 下丹田에 있다. 下丹田에서 中丹田에 이르고 中丹田에서 上丹田으로 옮겨지며, 上丹田에서 天門으로 나가는 것이 三遷功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다⁵³⁾.

《金仙證論》에서는 上丹田과 下丹田을 각각 乾과 坤으로 表現하고, 坤을 火로 乾을 술으로 比喻하여 人體를 說明 하였다⁵⁴⁾.

① 上丹田

上丹田은 尼丸⁵⁵⁾, 乾頂⁵⁶⁾, 天谷⁵⁷⁾, 內院⁵⁸⁾, 天心^{59, 60)}, 隨海⁶¹⁾, 明堂⁶²⁾, 天⁶³⁾, 目⁶⁴⁾, 穴⁶⁵⁾, 天目⁶⁶⁾이라 불린다.

經穴學的으로는 印堂, 天庭으로 볼 수 있고 그 位置는 “印堂……在兩眉中陷中是穴”⁶⁷⁾로 볼 수 있고, 效能을 보면 《針灸大成》에서는 “印堂……治小兒驚風”⁶⁸⁾라고 했다.

《素問 本病論》에서는 “神有上丹田, 在帝天一帝君泥丸君下, 神即失守, 神光不聚”⁶⁹⁾라 하여 上丹田의 重要性을 나타내었다.

《仙佛合宗》에서는 “양광은 양 眉間에서

49) 葛洪 著, 昔原台 譯註: 眞本內功秘傳 新譯 抱朴子 內編 2, 서울, 서림문화사, 1995, p. 223.

50)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眞本內功秘傳 譯註 仙佛合宗, 서울, 서림문화사, 1994, p. 83.

51)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眞本內功秘傳 譯註 仙佛合宗, 서울, 서림문화사, 1994, p. 83.

52) 楊青藜 著, 金仙學會 옮김: 大成捷徑, 서울, 여강출판사, 1995, p. 21.

53)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天仙正理, 서울, 서림문화사, 1994, p. 68.

54) 劉華陽 著, 柳正植 譯: 金仙證論, 서울, 여강출판사, 1993, p. 94.

55) 王琦 外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424.

56) 吉元昭治 著, 都玆淳 譯: 道教와 不老長生醫學, 서울, 圖書出版 열린책들, 1992, p. 368.

5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263.

58) 吉元昭治 著, 都玆淳 譯: 上揭書, p. 368.

59) 浙江省氣功科學研究會, 氣功雜誌編輯部主編: 中國氣功四大經典講解 《黃帝內景經》, 浙江省, 浙江古籍出版社, p. 253.

60) 呂洞賓 著, 李允熙, 高聖勳 共譯: 太乙金華宗旨,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 18.

6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9.

62)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仙佛合宗, p. 35.

63) 楊青藜 著, 金仙學會 옮김: 上揭書, p. 21.

64) 楊青藜 著, 金仙學會 옮김: 上揭書, p. 21.

65) 楊青藜 著, 金仙學會 옮김: 上揭書, p. 21.

66) 呂洞賓 著, 李允熙, 高聖勳 共譯: 上揭書, p. 32.

67)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84.

68)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84.

69) 王琦 外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424.

나타나는데 그것을 명당이라 한다. 이곳이 양광 發顯되는 곳이고, 양광이 發顯될 때는 번갯불이 번쩍 비치는 것 같이 恍惚하다.”라고 했다⁷⁰⁾. 또한 “上丹田은 一名 尼丸宮이라고도 하는데, 양신이 돌아가야 될 본래의 궁인 것이다.”라고 했다⁷¹⁾. 또한 《丹家別旨口訣》에서도 “煉之久熟，漸自天庭，降之心宮”이라 하였다.

《大成捷徑》에서는 “上丹田은 天，目，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穴은 大腦 前頭葉，視覺中樞가 모여 있는 곳으로 兩眉間에 해당한다. 그리고 目は 尼丸이라고 불리는데 頭腦 發生學上 가장 처음 生成되는 부분인 間腦와 視床下部를 가리킨다. 그리고 天은 天鏡이라고도 불리며 後頭葉에 해당된다.”라고 했다⁷²⁾.

《太乙金華宗旨》에서는 “∴ 세 점은 곧 해와 달과 天罡星인데, 사람의 몸에 있어서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과 두 눈썹 사이의 편편한 부분이다. 사람의 歷史가 이루어지기 전에 神과 같았던 사람들에게는 모두 눈이 셋씩 있었다. 사람이 智慧를 닦고 불리노라

면 두 눈썹 사이의 편편한 곳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서 열리게 된 눈을 天目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天目の位置를 “丹을 설명하는 책에서 이른바 ‘해와 달이 완전히 합쳐지는 곳’이라는 것이다”라고 했다⁷³⁾.

② 中丹田

中丹田은 心宮⁷⁴⁾, 降宮⁷⁵⁾, 絳宮⁷⁶⁾, 應谷⁷⁷⁾, 魂靈⁷⁸⁾, 黃堂⁷⁹⁾, 玄竅⁸⁰⁾, 土府, 黃庭이라고도 한다.

經穴學的으로는 膻中⁸¹⁾, ⁸²⁾에 해당하며 그 위치는 “玉堂下一寸六分，橫量兩乳間陷中，抑以取之”라 하였다.

膻中은 《靈樞·海論》에서는 “膻中者，爲氣之海”라 하여 宗氣의 所積處로서 膻中을 氣의 會穴로 보고 있으며 “膻中……任脈氣所發”⁸³⁾, “膻中……足太陰，少陰，手太陽，少陽，任脈之會”⁸⁴⁾이라 하는 등의 特徵이 있고, 効能을 보면 《針灸大成》에서는 “膻中……氣會膻中. 主上氣短氣，噎氣，心胸痛，風痛，咳嗽，肺癰唾膿”⁸⁵⁾라 했다.

《大成捷徑》에서는 “中丹田은 中宮 혹은 黃庭이라고 불리며 명치 部分에 該當하는데

70)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仙佛合宗, p. 35.

71) 伍守陽 著, 昔原台 譯註: 仙佛合宗, p. 83.

72) 楊青藜 著, 金仙學會 옮김: 上揭書, p. 21.

73) 呂洞賓 著, 李允熙, 高聖勳 共譯: 上揭書, p. 32.

74) 李鐘殷 譯, 海東傳道錄, 青鶴集, 《丹家別旨口訣》 서울, 普成出版社, 1986, p. 271.

7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9.

7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263.

7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263.

78) 浙江省氣功科學研究會, 氣功雜誌編輯部主編: 中國氣功四大經典講解 《黃庭內景經》, 浙江省, 浙江古籍出版社, p. 228.

79) 吉元昭治 著, 都玟淳 譯: 道教와 不老長生醫學, 서울, 圖書出版 열린책들, 1992, p. 368.

80) 吉元昭治 著, 都玟淳 譯: 道教와 不老長生醫學, 서울, 圖書出版 열린책들, 1992, p. 368.

8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89. “膻中者, 心主之宮城也.” 《靈樞》

82) 裴錫榮 編: 實用武堂氣功,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5.

83) 蔡禹錫: 經穴集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4.

84)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4.

85)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4.

解剖學的으로 太陽神經叢이 있다”고 했다⁸⁶⁾.

《太乙金華宗旨》에서는 大還丹이 끝나면 中丹田에 聖胎가 맺힌다고 한다⁸⁷⁾.

《金仙證論》에서는 修練方法을 說明하는 가운데 “精이 생기면 밖으로 달아나게 되니 이에 神으로써 精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呼吸의 氣로 하여금 神의 號令을 따라 精을 中宮으로 끌어 당겨 神과 氣를 混合시키게 되면, 神은 곧 불이 되고 氣는 火爐가 된다.”라고 하여 中丹田(中宮)에서 氣와 神을 합치는 方法을 說明하였다⁸⁸⁾.

③ 下丹田

下丹田은 臍下⁸⁹⁾, 丹田⁹⁰⁾, 氣海⁹¹⁾, 虛谷⁹²⁾, 關元⁹³⁾, 土釜⁹⁴⁾, 神爐天樞⁹⁵⁾, 天心⁹⁶⁾이라고도 한다.

經穴學的으로 石門⁹⁷⁾, 陰交, 氣海, 關元穴을 달리 부른 이름으로 一般的으로 關元穴

을 말한다.

그 位置는 關元穴은 臍下三寸⁹⁸⁾, 石門穴은 臍下二寸⁹⁹⁾, 氣海穴은 臍下一寸半¹⁰⁰⁾, 陰交穴은 臍下一寸¹⁰¹⁾으로 볼 수 있으며 《東醫寶鑑》에서는 “十二經脉은 모두 生氣之源과 關係가 있는데 生氣之源은 腎間動氣라 하고 즉 下丹田을 가리킨다(難經).¹⁰²⁾”고 나와있다.

각 經穴들의 特徵에 대하여도 《東醫寶鑑》에서는 “關元……小腸之募. 足三陰, 任脈之會. 下紀者, 關元也”¹⁰³⁾, “石門……三焦募也”¹⁰⁴⁾, “石門……任脈氣所發”¹⁰⁵⁾, “氣海……男子 生氣之海”¹⁰⁶⁾, “氣海……任脈氣所發”¹⁰⁷⁾, “陰交……三焦之募. 任脈, 少陰, 衝脈之會”¹⁰⁸⁾, “陰交……任脈氣之會”¹⁰⁹⁾라고 하였다. 效能을 보면 《針灸大成》에서는 “關元……主積冷虛乏, 臍下絞痛, 失精白濁, 轉脬閉塞, 產後惡露不止”¹¹⁰⁾, “石門……主傷寒, 小便不利, 小腹絞

86) 楊奇藝 著, 金仙學會 옮김: 上揭書, p. 21.

87) 呂洞賓 著, 李允熙, 高聖勳 共譯: 上揭書, p. 46.

88) 柳華陽 著, 柳正植 譯: 金仙證論, 서울, 여강출판사, 1993, p. 93.

89) 李鐘殷 譯, 海東傳道錄, 靑鶴集, 《丹家別旨口訣》 서울, 普成出版社, 1986, p. 271.

9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4.

9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4.

9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263.

9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263.

94) 魏伯陽 著, 朱元育 闡幽, 李允熙 譯註: 參同契闡幽,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 361.

95) 吉元昭治 著, 都瑠淳 譯: 道教와 不老長生醫學, 서울, 圖書出版 열린책들, 1992, p. 368.

96) 呂洞賓 著, 李允熙, 高聖勳 共譯: 上揭書, p. 18.

97)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0.

98)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 349~350.

99)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0.

100)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 350~351.

101)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1.

10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420.

103)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 349~350.

104)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0.

105) 蔡禹錫 編: 經穴集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95.

106)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 350~351.

107) 蔡禹錫 編: 經穴集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97.

108)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1.

109) 蔡禹錫 編: 經穴集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 399.

痛, 氣淋血淋, 婦人因產惡露不止”¹¹¹⁾, “氣海……主傷寒, 腹脹腫, 氣喘心下痛, 冷病面赤, 癥瘕結塊, 產後惡露不止”¹²²⁾, “陰交……主氣痛如刀攪, 腹脹堅痛, 腰膝拘攣, 產後惡露不止絕子”¹¹³⁾라 하였다.

三丹田은 氣功療法때 情神을 集中시키는 곳. 東醫 古典에는 배꼽 아래部位를 下丹田이라 했다. 배꼽 아래로 3치 되는 곳으로 腎間動氣를 말한다¹¹⁴⁾.

《大成捷徑》에서는 “下丹田은 배꼽에서 恥骨까지의 下腹部 全體를 말하는데 여기에 氣穴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현관이 있다. 이 氣穴은 解剖學的으로 전립선이 있는 精囊으로서 精液을 生成시키는 곳이다.”라고 했다¹¹⁵⁾.

2) 三 關

三關은 督脈 經路중 氣의 흐름이 막힌 세 곳을 말하는 것으로 尾閭¹¹⁶⁾, 夾脊¹¹⁷⁾(軛轡¹¹⁸⁾

), 玉枕¹¹⁹⁾을 말하는 것으로 《東醫寶鑑》에서는 “몸의 뒷부분에는 三關이 있는데 腦後를 玉枕關이라 하고 등골뼈 양쪽을 軛爐關이라 하며 水火가 交流되는 곳을 尾宮關이라 한다.”고 했다¹²⁰⁾.

《大成捷徑》에서는 “前三門은 印堂, 中脘, 氣海이며, 後三關은 尾閭, 夾脊, 玉枕을 말한다”라고 했다¹²¹⁾.

《慧命經》에서는 “사람 몸의 등뼈에 막힌 곳 셋이 있는데, 尾閭와 夾脊과 玉枕이라는 세 關門이다.”라고 했다¹²²⁾.

① 玉枕關

玉枕關은 大牛車¹²³⁾, 腦後¹²⁴⁾, 泥丸¹²⁵⁾, 鷲嶺¹²⁶⁾, 中關이라고도 한다.

經穴學的으로는 瘡門¹²⁷⁾, 風府¹²⁸⁾, 腦戶¹²⁹⁾로 볼 수 있으며, 그의 位置는 “瘡門……項後入髮際五分, 項中央宛宛中, 仰頭取之”¹³⁰⁾. “風府……項後入髮際一寸, 大筋宛宛中, 疾言

110)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 349~350.

111)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0.

112)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1.

113)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1.

11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著: 제편집 東醫學辭典, 서울, 도서출판 가치, 1990, p. 207.

115) 楊青藜 著, 金仙學會 옮김: 上揭書, p. 21.

116)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10.

117) 張和 著: 中國氣功學, 五州出版社, p. 262.

118)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10.

119)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10.

120)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10.

121) 楊青藜 著, 金仙學會 옮김: 上揭書, p. 21.

122) 柳華陽 著, 李允熙 옮김: 慧命經, p. 106.

123) 魏伯陽 著, 陳顯微 註解, 陶素躬 述釋: 周易參同契解, 周易參同契脈望 合本 參同契金丹圖說 末券 靜照圖說, 自由出版社, 中華民國 六十八年 七月, p. 252.

12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9.

12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86.

126) 柳華陽 著, 李允熙 譯: 慧命經, 서울, 羅江出版社, 1994, p. 306.

127)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 359~360.

128)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60.

129)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 160~161.

130)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 359~360.

131)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60.

其肉立起，言休立下”¹³¹⁾，“腦戶……枕骨上，強姦後一寸半”¹³²⁾로 볼 수 있고，“瘧門……督脈，陽維之會。入繫舌本”¹³³⁾，“風府……足太陽，督脈，陽維之會”¹³⁴⁾，“腦戶……足太陽，督脈之會”¹³⁵⁾ 등의 特徵이 있으며，效能을 보면 《針灸大成》에서는 “瘧門……主舌急不語，諸陽熱氣盛”¹³⁶⁾，“風府……主中風，舌緩不語，身重惡寒，鼻衄，咽喉腫痛”¹³⁷⁾，“腦戶……主面赤目黃，面痛，頭重腫痛，癩癧”¹³⁸⁾라고 하였다.

이곳은 氣가 督脈을 따라 올라갈때 지나게 되는 세 關門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官門으로 그 部位는 枕骨 즉 後頭結節¹³⁹⁾，兩風池穴¹⁴⁰⁾ 사이，胸推骨 사이 튀어나온 곳，頸後骨(大略 髮際穴)¹⁴¹⁾ 등의 說로 나누어져 있으나 스스로 體驗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¹⁴²⁾.

尼丸이라는 名稱은 大腦에도 氣의 바다가 있는데，그 가운데에 진흙 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서 공부가 능히 靜·虛하게 되면，마치 진흙이 물에 풀리듯이 그 덩어리가 氣에 풀리고 督脈에서 任脈으로 넘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다. 이곳을 완전히 풀어서 圓虛하게 되고 그에 眞氣가 흘러들게 되면 모든 經穴이 풀어지고 하늘과 땅의 德을 갖추게 된다. 腦神經의 뿌리라고도 하고，松果線이라고도 하는 學者가 있다¹⁴³⁾.

《天仙正理》에서는 “玉枕은 椎骨의 最上段部를 말한다”라고 했다¹⁴⁴⁾.

② 轆轤關

轆轤關은 鹿車¹⁴⁵⁾，雙關¹⁴⁶⁾，夾脊¹⁴⁷⁾，中關¹⁴⁸⁾라고도 한다.

經穴學的으로는 “夾脊穴在第三二節，……緊閉大椎穴第三節……”¹⁴⁹⁾로 미루어 보아 筋縮으로 類推되고，脊中(一名神宗，一名脊俞)¹⁵⁰⁾，至陽，靈臺¹⁵¹⁾로 볼 수 있으며 그의 位置는 “筋縮……九椎下，府而取之”¹⁵²⁾，“脊中……十

132)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p. 160~161.

133)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p. 359~360.

134)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60.

135)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p. 160~161.

136)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p. 359~360.

137)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60.

138)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p. 160~161.

139) 吉元昭治 著，都玟淳 譯：上揭書，p. 361.

140) 張和 著：中國氣功學，五州出版社，p. 360.

141) 柳華陽 著，李允熙 옮김：慧命經，p. 106.

142) 柳華陽 著，李允熙 옮김：慧命經，p. 106.

143) 柳華陽 著，李允熙 옮김：慧命經，서울，여강출판사，1991，p. 86.

144) 伍守陽 著，昔原台 譯註：天仙正理，p. 74.

145) 魏伯陽 著，陳顯微 註解，陶素躬 述釋：周易參同契解，周易參同契張望 合本 參同契金丹圖說 末卷 靜照圖說，自由出版社，中華民國 六十八年 七月，p. 252.

146) 李鑑殷 譯，海東傳道錄，霄鶴集，《丹家別旨口訣》서울，普成出版社，1986，p. 271.

147) 張和 著：中國氣功學，五州出版社，p. 262.

148)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49) 張和 著：中國氣功學，五州出版社，p. 262.

150)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51) 허천우：金丹의 길，서울，驪江出版社，1994，p. 137.

152)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53)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一椎下，俯而取之”¹⁵³，“至陽……七椎下，俯而取之”¹⁵⁴，“靈臺……六椎下，俯而取之”¹⁵⁵로 볼 수 있다. “筋縮……督脈氣所發”¹⁵⁶，“脊中……督脈氣所發”¹⁵⁷의 特徵이 있으며, 效能을 보면 《針灸大成》에서는 “筋縮……主癱疾狂走，心痛”¹⁵⁸，“脊中……主風癲癘邪，黃疸，腹滿，下利”¹⁵⁹，“至陽……主腰脊痛，胃中寒氣，寒熱解休”¹⁶⁰，“靈臺……以治氣喘不能臥”¹⁶¹라고 하였다.

氣가 督脈을 따라 올라갈때 지나게 되는 세 關門중 가운데의 것으로, 그 위치는 脊椎第12節 아래라고 하는 說과 宗팔이 있는 部位라는 說이 있는데 修練을 통해 발견해 낼 수 있다¹⁶²).

《天仙正理》에서는 “夾脊은 腰와 脊椎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했다¹⁶³).

《金仙證論》에서는 夾脊에 분명히 길이 있다고 하였다¹⁶⁴).

③ 尾閭關

尾閭關은 下關¹⁶⁵，龍虎穴¹⁶⁶，曹溪路^{167, 168}，三分路¹⁶⁹，河車路¹⁷⁰，太元關¹⁷¹，朝天嶺¹⁷²，上天梯¹⁷³，水火之際¹⁷⁴라고도 한다.

經穴學的으로는 “尾閭穴第十九節……緊閉大椎穴三節……”¹⁷⁵로 유추하여 陽關，長強(一名氣之陰邪，一名概骨)¹⁷⁶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位置는 “陽關……十六椎下坐而取之”¹⁷⁷，“長強……脊骹骨端計三分，伏地取之”¹⁷⁸로 볼 수 있다. “長強……足少陰，少陽之會. 督脈絡，別走任脈”¹⁷⁹ 등의 特徵이 있으며, 效能을 보면 《針灸大成》에서는 “陽關……主膝外

- 154)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55)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56) 蔡禹錫 編：經穴集成，서울，大星文化社，1995，p. 434.
 157) 蔡禹錫 編：經穴集成，서울，大星文化社，1995，p. 432.
 158)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59)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60)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61)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62) 柳華陽 著，李允熙 옮김：慧命經，p. 106.
 163) 伍守陽 著，昔原台 譯註：天仙正理，p. 74.
 164) 柳華陽 著，柳正植 譯：金仙證論，서울，여강출판사，1993，p. 141.
 165)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66)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67) 柳華陽 著，李允熙 譯：慧命經，서울，驪江出版社，1994，p. 300.
 “曹溪者，背骨之髓路也.”
 168)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69)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70)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71) 魏伯陽 著，朱元育 闡幽，李允熙 譯註：參同契闡幽，서울，驪江出版社，1994，p. 361.
 172)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73)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74)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9.
 175) 張和 著：中國氣功學，五州出版社，p. 262.
 176)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7.
 177)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7.
 178)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7.
 179)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7.

不可屈伸，風痺不仁，筋攣不行”¹⁸⁰⁾，“長強……主腸風下血，腰脊痛，驚癇瘰癧，房勞”¹⁸¹⁾라 하였다.

內丹術에 있어서 氣를 下丹田에 集中하고서 任脈, 督脈을 도는 經路를 타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尾閭’이다. 《秘傳正陽真人靈寶畢經》에서는 등뒤의 尾閭穴은 下關이라 했고, 《拘一子三峯老人丹訣》에서는 尾閭骨의 그림이 실려 있는데 그것을 보면 骨盤骨의 하나인 仙骨처럼 되어있다¹⁸²⁾.

《東醫寶鑑》에서는 “人之脊骨二十四節，節之末，又曰尾閭穴”¹⁸³⁾라 하였다.

《天仙正理》에서는 “關이라는 것은 중요한 通路를 뜻하는 것으로, 그 難行을 比喻한 말이다. 尾閭의 閭는 關이란 뜻이며, 尾란 脊骨의 最下段을 의미한다. 脊椎에는 中左右에 세개의 竅가 있으며 骨髓는 사실상 통하지 않는다.”라 했다¹⁸⁴⁾.

3) 身神과 五臟六腑

① 身神¹⁸⁵⁾

五臟神¹⁸⁶⁾

道敎와 現 韓醫學에서의 五臟六腑는 그 形態와 作用에 있어서 거의 類似하다. 단지 道敎에서는 ‘身神’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現 漢醫學과 다른점이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太平經》중의 한 테마에 ‘五臟神’이란 것이 있다. 조용한 곳에서 思索하며 五臟神을 생각하면 하늘에서 神이 내려와서 몸속에 들어와 病을 고친다는 것이다. 道敎經典 속의 內觀 속에도 똑같은 部分을 볼 수 있다¹⁸⁷⁾.

“사람이 없는 방에서 臟色에 의해 五臟神이 形象을 그리며 四時의 氣에 應해 이것을 창외 빛속에 걸고 마음속으로 빈다. 그렇게 하면 五臟神이 와서 도와주어 어떤 病이라도 낫게 된다.”, “이 五臟神은 사람의 몸에서 곧잘 밖으로 나가 버리므로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예를들면 肝神이 人體에서 나가 버리면 눈이 어두워 지고, 心神이 없으면 입술이 파래지고, 肺神이 없으면 코가 막히며, 腎神이 없으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脾神이 없으면 배속이 단맛을 알 수 없고, 頭神이 없으면 배속이 不便하여 消化가 안되고, 四肢神이 없으면 걸을 수 없게 된다. 神의 精은 그 性質이 언제나 조용하고 넓은 곳에 있으며 더러운 곳에는 있지 않는다. 이 神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沐浴齋係하고 향을 피운 방에 神의 形象을 걸어두고 祈願하면 여러 病이 낫게 된다”¹⁸⁸⁾.

이 部分은 《道藏》속의 〈三洞樞機雜說〉과 〈三洞珠囊〉에도 《太平經》을 引用하고 있다¹⁸⁹⁾.

“四時五行의 氣는 사람의 배속에 들어가면 五臟神이 되어 그 色은 天地 四時의 色

180)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8.

181)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57.

182) 吉元昭治 著：上揭書，p. 350.

183)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2，p. 386.

184) 伍守陽 著，昔原台 譯註：天仙正理，p. 73.

185) 都玟淳 著：上揭書，p. 132.

186) 都玟淳 著：上揭書，p. 132.

187) 吉元昭治 著，都玟淳 譯：上揭書，p. 71.

188) 吉元昭治 著，都玟淳 譯：上揭書，p. 72.

189) 吉元昭治 著，都玟淳 譯：上揭書，p. 72.

에 應한다. 이 四時五行의 精神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五臟神이 되고 나오면 四時五行神精이 된다¹⁹⁰⁾.

그런데 이 五行神이란 “東方의 騎神은 創을, 南方의 騎神은 戟(끝이 세갈래로 된 創)을, 西方의 騎神은 활과 큰 활, 도끼를 中央의 騎神은 칼과 북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五行의 色에 따라 表現한 것이다.”라고 한다¹⁹¹⁾.

韓國 道敎學會에서는 身神에 대해서 修道를 하는 者는 存思內觀에 의해서, 病이 있으면 그 病의 部位에 相當하는 神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神을 부르고, 그 存在를 생각하고, 交流하여 身體의 平衡, 調和를 圖謀하고 病邪의 進入을 防止하고, 病을 治癒함으로써 道敎가 目的으로 하는 不老長生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說明한다¹⁹²⁾.

身神의 數는 《太上老君玄妙枕中內復神呪經》, 《太上老君說常清經註》, 《氣法要訣》等에는 3萬 6千이라 하고, 《도추》 제 27卷에 의하면 “肝神 3萬 6千, 肺神 1萬 2千, 脾神 8萬 4千 腎神 5萬”이라고 되어 있고, 《황정외경경》에는 “몸에 360神이 있다”고 써여 있다¹⁹³⁾.

五臟神에 관해서도 그후 다시 肝 心 腎神에다가 膽神을 보탠 것이 《登眞隱訣》, 《上清衆經諸眞聖秘》, 《太上黃庭內景玉經》, 《黃庭內景經》, 《四氣攝生圖》, 《上清迎神飛宵登空招五星上法經》等에 보인다. 그 五臟神도 神의 名稱이 다르기도 하고 五臟陰陽 關係의

身神 이름도 있다¹⁹⁴⁾.

〈丑 1〉 五臟神名(上段의 五臟神名은 《雲笈七籤》, 下段은 《太上黃庭內經 玉經》에 의한다)

| | 구 분 | 神 名 |
|-----|--------|----------|
| 肝 神 | 五臟神 | 青龍字惡龍子方 |
| | | 龍煙字含明 |
| 心 神 | 五臟神 | 豪丘 字陵陽子明 |
| | | 丹元 字守靈 |
| 肺 神 | 五臟神 | 方長宜 字子元 |
| | | 皓華 字虛成 |
| 腎 神 | 五臟神 | 雙以 字林子 |
| | | 玄冥 字脊嬰 |
| 脾 神 | 五臟神 | 黃庭 字飛黃子 |
| | | 常在 字魂庭 |
| 膽 神 | 六腑의 하나 | 龍燿 字滅明 |

頭部九宮이란 明堂宮, 洞房宮, 丹田泥丸宮, 流珠宮, 玉帝宮, 天庭宮, 極眞宮, 玄丹宮, 太皇宮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身神은 《黃庭內景玉經註》의 《上清握中訣 蘇君傳行事訣》, 《등진은결》, 《無上秘要》 등 20餘個의 經典에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書籍의 內容은 서로 같지는 않다¹⁹⁵⁾.

上中下 三丹田도 身神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身神도 《上清太極眞人神仙經》, 《太上靈符五符序》 등 經典에 있다¹⁹⁶⁾.

二十四神

190) 吉元昭治 著, 都玟淳 譯: 上揭書, p. 72.
 191) 吉元昭治 著, 都玟淳 譯: 上揭書, p. 71.
 192) 都玟淳 編: 上揭書, p. 132.
 193) 都玟淳 編: 上揭書, p. 132.
 194) 都玟淳 編: 上揭書, p. 132.
 195) 都玟淳 編: 上揭書, p. 133.
 196) 都玟淳 編: 上揭書, p. 133.

身神의 數는 다시 더 늘어나고 또 複雜하게 되어, 3部 8景 24景神을 낳는다. 《黃辰內經玉珠經》에서는 세 곳의 세 곳에 각 8人의 眞神이 있고 24個의 神이 있다고 한다¹⁹⁷⁾.

〈표 2〉 오장 음양관계의 신신명(紫皇鍊度玄科)

| | |
|-----|--------|
| 腎 神 | 玄眞君字育嬰 |
| 膀胱神 | 太虛君傳送 |
| 心 腎 | 丹元君字守靈 |
| 小腸神 | 太靈君字水欲 |
| 肝 神 | 龍淵君字合明 |
| 膽 神 | 龍耀君字滅明 |
| 肺 神 | 皓華君字虛成 |
| 大腸神 | 元王君字治和 |
| 脾 神 | 常在君字安停 |
| 胃 神 | 靈源君字太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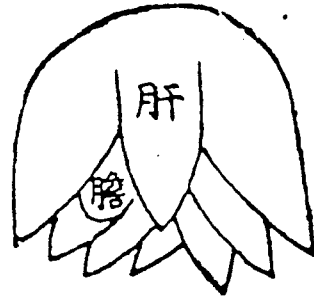
② 五臟六腑

여기서는 東醫寶鑑의 五臟圖 및 各種 文獻에 나오는 內景圖와 五臟六腑圖에서 볼 수 있는 五臟六腑를 表現한 것인데 內景에 관한 內容을 關聯시켜서 살펴보면 現在의 解剖學에서 볼 수 있는 五臟六腑의 模樣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① 肝

肝의 形態¹⁹⁸⁾

肝은 2個의 퍼진 잎과 1個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 껍질이 터진 模樣과 같다. 잎들에는 각각 支絡과 經脈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陽氣를 고르롭게 퍼지게도



〈東醫寶鑑·肝臟圖〉

하고 내보내기도 한다. 이곳에는 또한 魂이 있다(內經註)¹⁹⁹⁾.

肝은 2個의 큰 잎과 1個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3個의 잎, 오른쪽에 4個의 잎으로 갈라져 있어서 나무껍질이 여러 조각으로 터진 것 같다²⁰⁰⁾.

肝의 무게는 2.4kg이다. 그리고 왼쪽에 3個의 잎, 오른쪽으로 4個의 잎으로 되어 있어 모두 7個의 잎이다. 여기에는 주로 魂이 간직되어 있다²⁰¹⁾.

肝의 位置²⁰²⁾

肝은 왼쪽에서 부터 생긴다(內經).

肝에 달린 줄은 橫隔膜 아래에서 부터 왼쪽 갈비뼈에까지 붙어 있고 위로는 횡격막을 뚫고 올라가 肺속으로 들어 갔다가 橫隔膜에 연결되었다²⁰³⁾.

197) 都玟淳 著：上揭書, p. 133.

198) 許浚 著：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289.

199) 許浚：上揭書, p. 289.

200) 李挺：國譯 編註醫學入門 1, 서울, 도서출판 남산당, 1974, p. 430.

201) 浚耀星 主編：難經校註, 서울, 도서출판 一中社, 1992, p.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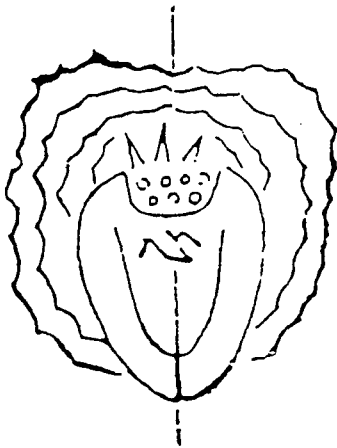
202) 許浚 著：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290.

2個의 期門혈은 肝의 募穴인데 양쪽 적에서 곧바로 아래로 1寸 半 되는 곳에 있고 잔등에는 肝俞穴이 있는데 第 9胸椎와 第 10胸椎 棘狀突起 사이에서 옆으로 각각 2치 되는 곳에 있다. 이것이 肝에 該當한 部位이다(銅人).

㉔ 心

心の 形態²⁰⁴⁾

心臟의 形態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과 같고 가운데 9個의 구멍이 있는데 이곳을 天地의 氣를 이끌어 가는 精神이 들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內經主).



〈東醫寶鑑·心臟圖〉

心臟의 무게는 480g이다. 속에 구멍이 7個 있고 털이 3個가 있으며 精汁 3흡이 들어 있는데 精神을 主管한다²⁰⁵⁾.

知識이 낮은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7個 있고 털이 3個 있다. 知識이 普通인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5個 있고 털이 2個 있다. 知識이 얕은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3個 있고 털이 1個 있다. 普通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2개 있고 털이 없다. 우둔한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1個 있다. 몹시 우둔한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1個 있는데 그나마도 몹시 작다. 구멍이 없는 것은 精神이 드나드는 門이 없는 것이다²⁰⁶⁾.

心臟에는 구멍이 7個와 털 3個가 있는데 7個의 구멍은 北斗七星에 相應하고 3個의 털은 3태성에 相應하기 때문에 마음이 至誠이면 하늘과 通한다²⁰⁷⁾.

心包絡이란 실지 心臟을 싸고 있는 膜인데 心臟의 곁을 싸고 있기 때문에 心包絡이라고 한다(正傳).

心臟의 形態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과 같아서 위는 크고 아래는 뾰족한데 肺에 거꾸로 붙어있다(類聚).

心臟의 位置²⁰⁸⁾

心臟은 肺臟의 아래, 肝臟의 위에 있다. 五臟의 줄이 心臟과 通해 있어서 心臟과 五臟과 通하게 된다. 그리고 心臟의 줄이 五臟의 줄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五臟에 病이 생기면 먼저 心臟이 侵犯을 받는다. 그 줄이 위로는 肺와 연결되어 있다. 그중 한 줄은 兩 肺葉의 가운데서 부터 始作하여 뒤로가서 잔등을 通한 다음 腎으로 갔다가 膀胱으로 가서 膀胱膜의 絡脈과 같이 오름이

203) 李挺：上揭書，p. 430.

204)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298.

205) 波羅星 主編：上揭書，p. 75.

206)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298.

207) 李挺：上揭書，p. 416.

208)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299.

나가는 곳까지 간다. 이것이 心과 關聯된 部位이다²⁰⁹⁾.

그밖에 道教와 關聯된 文獻을 살펴보면 心은 다른 臟器에 比해서 더 큰 重要性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太上老君中黃經》에서는 “丹田 속이 붉은 것은 太陽의 精이다. 그것은 心火의 氣이다.”고 했고, 《三元延壽秘書》에서는 “心은 五臟의 王이다”라고 했다. 《道樞》에서는 “사람은 身體를 집으로 삼는데 心이 身體를 다스린다. 心은 火이다”라고 했고, “心은 하늘이며 신은 땅이다”라 했다. 《太上老君說常清淨經》에서는 “心은 神을 품고 神은 氣를 품는다.”라고 했고 《黃庭經註》에서는 “心은 몸의 主人이다”라고 했다.

그밖에 《修真精氣雜論》, 《太上黃庭外經》 등에서도 心에 대해서 一身의 君초의 意味로 나타나 있다²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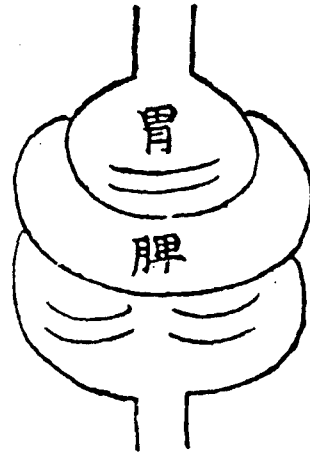
《靈樞·本臟篇》에는 “心大則 憂不能傷……心堅則 不能守固”라 하였다²¹¹⁾.

㉔ 脾

脾臟의 形態²¹²⁾

脾臟은 形態가 말발굽 같고 胃脘을 둘러싸고 있는데 土의 模樣을 象徵하였다. 그리고 經絡의 氣가 그 속으로 번갈아 들어가서 眞靈의 氣運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에서는 意도 들어있다.

脾臟은 납작하고 말발굽 같이 생겼는데 낫 같기도 하다²¹³⁾.



〈東醫寶鑑·脾臟圖〉

脾의 무게는 1,320g 이고 너비는 3치이며 길이는 5치이다. 여기에 흠어져 붙어 있는 기름은 300g 정도이다. 脾臟은 피를 간직하고 五臟을 따뜻하게 하는데 주로 意를 간직한다²¹⁴⁾.

脾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卑)인데 胃下에 있으면서 胃氣를 도와서 음식이 잘 消化되게 한다. 胃는 주로 받아들이고 脾는 주로 消化시킨다(綱目).

脾臟의 位置²¹⁵⁾

脾臟은 길이가 1자인데 太倉을 덮고 있다. 太倉이란 胃의 윗구멍이다. 즉 中脘部位에

209) 李樞：上揭書，p. 417.

210) 吉元昭治 著，都玗淳 譯：上揭書 p. 75.

211) 楊維傑 編著：內經靈樞譯解，서울，대성문화사，1990，p. 351.

212)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08.

213) 李樞：上揭書，p. 445.

214) 凌耀星 主編：上揭書，p. 75.

215)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08.

216) 李樞：上揭書，p. 443.

該當한다(東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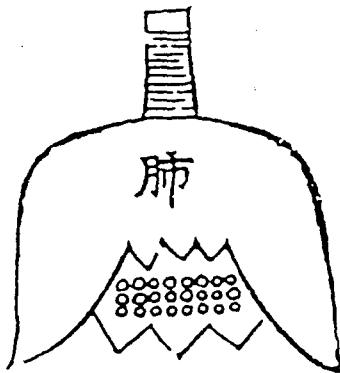
脾臟은 中脘보다는 1치 2푼 위에 있고 心臟보다는 3치 6푼 아래에 있으며 腎臟보다는 3치 6푼 위에 있다. 그 사이의 1치 2푼을 黃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늘에서는 太陽이고 땅에서는 太陰이며 사람에게서는 중황조기이다. 道家는 脾臟을 黃庭이라고 하였다. 누런것은 가운데 빛깔이며 뜨락은 四方의 가운데이다. 이처럼 脾臟은 몸의 中心에 있기 때문에 黃庭이라고 한다²¹⁶⁾.

脾와 胃는 膜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內經).

㊸ 肺

肺臟의 形態²¹⁷⁾

肺臟의 形態는 어깨와 비슷한데 2個의 퍼



〈東醫寶鑑·肺臟圖〉

진 잎과 여러個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다. 속에는 24個의 구멍이 줄을 지어 있는데 여기로 여러 臟器에 맑거나 흐린 氣를 보낸다. 그리고 주로 魄을 간직한다(內經主).

肺臟의 무게는 1.94kg이며 잎이 6個이고 귀가 2個이기 때문에 모두 8個의 잎으로 되어 있다²¹⁸⁾.

肺臟의 形態는 어깨와 비슷한데 경쇠 같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臟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덮개라고도 한다²¹⁹⁾.

肺의 位置²²⁰⁾

肺는 오른쪽에 감추어져 있다(內經).

肺에는 2個의 줄기가 있는데 한 줄기는 위로 올라와 喉頭(後龍)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心臟의 줄과 서로 通했다. 다른 한 줄기는 心臟에서 부터 肺로 들어온 것인데 2個의 큰 잎 사이에 들어와서 꼬부라져 뒤로 향하였다²²¹⁾.

㊸ 腎

腎의 形態²²²⁾

腎臟은 2個이다. 形態는 붉은 땅콩 같고 서로 마주 대하여 있으며 등의 힘줄에 꼬부랑하게 붙어있다. 그리고 같은 기름덩이로 덮여 있으며 겹고 속은 허연데 주로 精液을 貯藏한다(內經).

腎臟은 2個인데 무게는 각기 360g 씩이므로 모두 720g이다. 그리고 왼쪽의 것은 水에 屬하고 오른쪽의 것은 火에 屬한다. 男子는 왼쪽에 腎臟이 基本이고 女子는 오른쪽의 腎臟이 基本이다(難經).

217) 許浚 著：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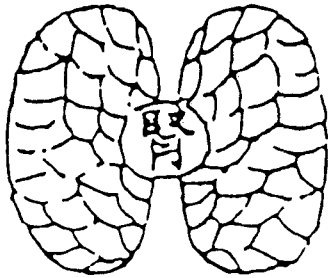
218) 浚耀星 主編：上揭書, p. 76.

219) 李樾：上揭書, p. 458.

220) 許浚 著：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17.

221) 李樾：上揭書, p. 458.

222) 許浚 著：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25.



〈東醫寶鑑·腎臟圖〉

腎臟의 形態는 붉은 땅콩 같은데 서로 마주 대하고 있으며 脊膈膜속에 고리처럼 꼬부장하게 붙어 있다. 그리고 속은 허영고 걸은 자주빛이다. 2個의 줄이 두 腎臟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갔고 위로는 心臟의 줄과 하나로 通하였다. 이것이 소위 坎水는 북쪽에 있고 離火는 남쪽에 있어서 水火가 서로 感應한다고 하는 것이다.

臟은 다 各各 1個씩이나 腎臟만은 2個이다. 腎臟이 2個지만 다 腎이 아니라 왼쪽의 것이 神이고 오른쪽의 것은 命門이다. 命門이란 精神이 머물러 있고 元氣가 생겨나는 곳이다. 男子는 여기에 精을 간직하고 女子는 여기에 胞가 매달려 있다. 그러니 腎은 1個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²³⁾.

命門은 基本 臟器가 아니며 三焦는 基本 腑가 아니다²²⁴⁾.

腎臟의 位置²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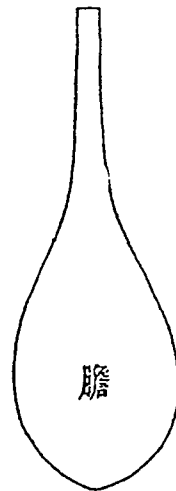
腎臟은 배꼽과 마주 대하고 있는데 그의 狀態는 허리에 나타난다. 허리는 腎臟의 바

깎 部位이다. 腎臟은 후궁에 있으며 2個이다 (類聚).

命門의 줄이 바로 心包絡인데 經脈은 手厥陰이며 그 腑는 三焦이고 그 部分은 心臟 아래에서 橫膈膜과 맞붙어 있고 누런 기름 덩어리가 퍼져 덮여 있는 것이 腎臟이다. 그리고 덮여 있는 기름 덩어리 밖으로 얇은 筋膜이 실처럼 되어 心臟, 肺臟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包絡이다²²⁶⁾.

④ 膽

膽의 形態²²⁷⁾



〈醫部全錄·膽腑形象之圖〉

膽이 빛은 검고 形態는 달려있는 박 같은데 간의 작은 앞 가운데 붙어 있다. 무게는 80g

223) 浚耀星 主編：上揭書，p. 67.

224) 李樅：上揭書，p. 483.

225)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26.

226) 李樅：上揭書，p. 484.

227)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36.

(120g이라고 한 데도 있다)이며 깨끗한 汁 3
 홉을 담고 있는데 드나드는 구멍은 없다²²⁸⁾.

肝의 남은 氣運이 膽으로 들어가 모여서
 깨끗한 汁이 되기 때문에 속에 깨끗한 汁이
 貯藏되게 되는데 이것이 새어 나가지 않고
 겉으로 物件을 환히 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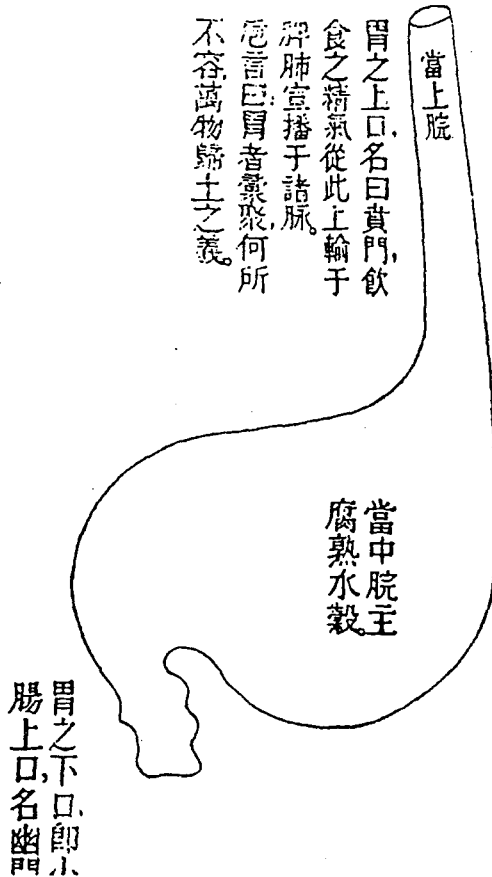
淸淨之腑라고 하는데 눈과 잘 通한다(脈訣).

膽의 位置²²⁹⁾

膽은 거드랑이를 主管한다. 양쪽 거드랑이
 와 缺盆은 모두 膽經의 길이다²³⁰⁾.

㊦ 胃

胃의 形態²³¹⁾



〈醫部全錄·胃腑形象之圖〉

228) 李梴: 上揭書, p. 437.

229)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36.

230) 李梴: 上揭書, p. 441.

231)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40.

胃는 길이는 1자 6치이고 구부러졌는데 줄었다 늘었다 한다. 늘어나면 길이가 2자 6치이다. 크기는 1자 5치 直徑은 5치이다. 飮食物은 3말 5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알곡 2말과 물 1말 5되가 들어갈 수 있다²³²⁾.

胃의 무게는 1,725g이다²³³⁾.

胃는 市場과 같다. 註解에 “胃는 飮食物이 들어가는 곳인데 5가지 맛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장거리 처럼 複雜하므로 市場과 같다고 한다”고 써어 있다(內經).

胃를 太倉이라고도 하는데 民間에서는 밥집(肚)이라고 한다. 飮食物은 3말 5되를 받아들인다. 普通 사람은 하루 두번씩 大便을 보는데 한번에 2되 5홉씩 하루 5되를 내보낸다. 그러므로 7日 동안에는 먹은 飮食物에서 3말 5되는 내보낸다. 때문에 普通 사람이

飮食物을 7日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것은 胃 속에 있던 飮食物의 津液이 다 없어지기 때문이다²³⁴⁾.

胃의 位置²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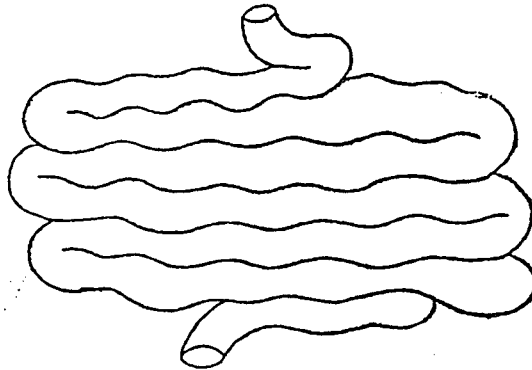
咽頭에서 胃까지의 길이는 1자 6치이다. 胃는 명치뼈와 배꼽 사이의 중간에 있는데 명치에서는 4치 아래에 있고 배꼽에서는 4치 위에 있다²³⁶⁾.

中腕穴은 胃의 募穴인데 명치뼈와 배꼽 사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명치뼈에서 4치 아래, 배꼽에서 4치 위에 있다. 잔등에는 委俞穴이 있는데 第 12胸椎와 第 1腰椎의 棘狀突起 사이로부터 옆으로 곁곁 2치 되는 곳에 있는데 이것이 胃에 該當한 部位이다.

◎ 小腸

小腸의 形態²³⁷⁾

小腸上口即胃之下口



小腸下口即腸之門
小腸大上名門

〈醫部全錄·小腸腑形象之圖〉

232) 楊維傑 編著：內經靈樞譯解，서울，大成文化社，1990，p. 274.

233) 浚耀星 主編：上揭書，p. 76.

234) 李旻：上揭書，p. 541.

235)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40.

小腸의 길이는 32자이고 너비는 제일 큰 곳이 2치 5푼이며 작은 데가 8푼5리이다. 무게는 1,725g인데 배꼽 있는 곳에서부터 왼쪽으로 첩첩이 16바퀴 돌아갔다. 그리고 그 속에는 飲食物 2말 4되와 물 6되 3홉 반 남짓하게 들어갈 수 있다²³⁸⁾.

小腸의 位置²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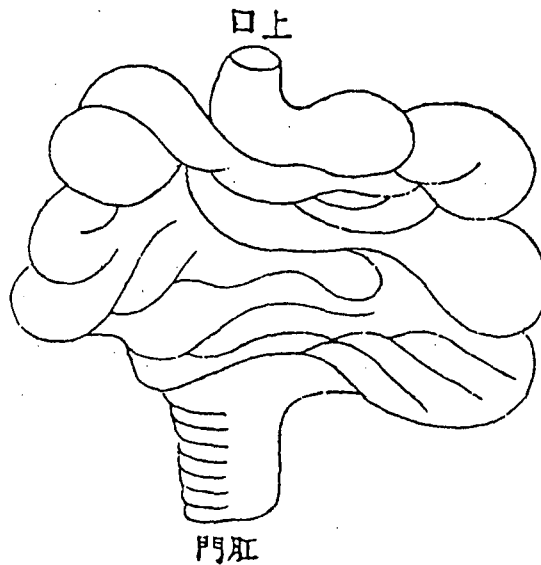
小腸은 뒤로 등뼈에 닿아 있고 배꼽을 중

심으로 하여 왼쪽으로 첩첩이 돌아 아래로 내려갔다²⁴⁰⁾.

胃의 아래 끝이 바로 小腸의 위 끝에 해당 되는데 이곳을 幽門이라고 한다. 배꼽에서 위로 1치 되는 곳이 水分穴인데 여기서 小腸의 아래끝에 該當된다²⁴¹⁾.

⊗ 大腸

大腸의 形態²⁴²⁾



〈醫部全錄·大腸腑形象之圖〉

大腸을 一名 回腸이라고도 하고 廣腸이라고도 한다. 길이는 21자(어떤 데는 2자라고 써어있다)이고 너비는 8치이며 直徑은 2치

5푼 남짓하고 무게는 1,650g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첩첩이 16바퀴 돌려 감겼고 그 속에는 飲食物 2말과 물 7되 5홉이 들어갈 수

236) 浚耀星 主編：上揭書，p. 76.

237)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48.

238) 楊維傑 編著：上揭書，p. 274.

239)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48.

240) 楊維傑 編著：上揭書，p. 274.

241) 李從：上揭書，p. 425.

242)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52.

있다²⁴³⁾.

腸胃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의 길이는 64치 4푼인데 32바퀴 돌려 감겨 있다. 大腸이 담을 수 있는 飲食物의 量은 모두 8말 7되 6홉 남짓하다(難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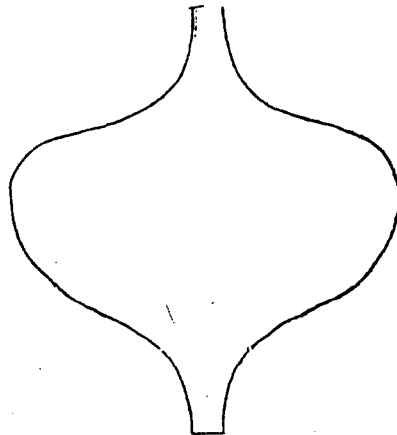
大腸의 位置²⁴⁴⁾

大腸은 뒤로 등뼈에 닿아 있는데 小腸의

찌꺼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첩첩이 겹쳐 있고 위아래에 큰 주름이 있다. 大腸의 아래끝은 항문과 연결되어 있다(入門).

㊸ 膀胱

膀胱의 形態²⁴⁵⁾



下
速
前
陰
溺
之
所
出。

〈醫部全錄·膀胱腑形象之圖〉

膀胱은 물을 담고 있으므로 津液之腑라고 하는데 위(上)에는 구멍이 있고 아래에는 구멍이 없다. 氣海穴이 氣를 받아 자기 작용을 잘해야 오줌이 잘 나온다. 氣海穴에 氣가 不足하면 오줌이 잘 나오지 못한다.

위에 있는 구멍의 너비는 2치 5푼이고 膀

胱 가운데 直徑은 9치인데 오줌을 9되 9홉을 담을 수 있다. 무게는 340g이다(難經).

膀胱의 位置²⁴⁶⁾

膀胱은 아랫배에 있다(靈樞).

㊹ 三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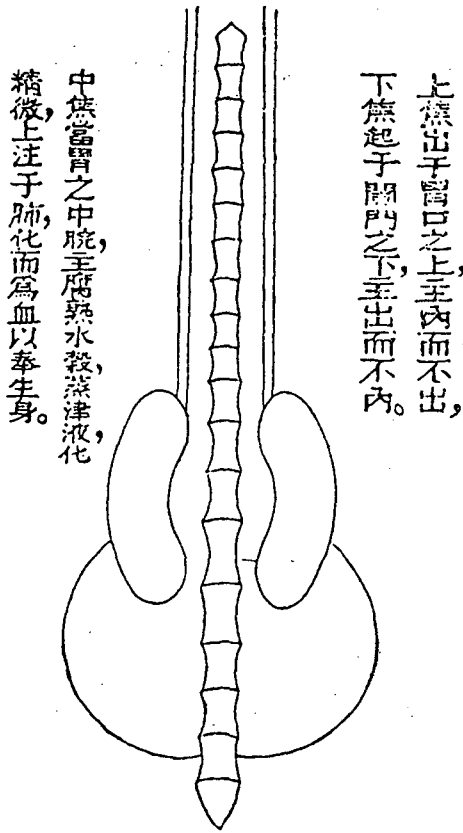
三焦의 形態²⁴⁷⁾

243) 後耀星 主編：上揭書，p. 76.

244)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52.

245)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58.

246) 許浚 著：東醫寶鑑，서울，여강출판사，1994，p. 358.



〈醫部全錄·三焦腑形象之圖〉

上焦는 안개와 같고 中焦는 거품과 같으며 下焦는 도랑과 같다(靈樞).

上焦는 주로 陽氣를 내서 皮膚와 살 사이를 따뜻하게 하는데 안개나 이슬이 잦아드는 것과 같이하므로 上焦를 안개 같다고 한다.

中焦는 飲食物의 맛을 精微한 氣運으로 變化시켜서 위로 肺에 보내어 血이 되게 한

다. 그리고 그것을 經脈 속으로 돌게하여 五臟과 온몸을 營養하게 한다. 그러므로 中焦를 거품과 같다고 한다.

下焦는 오줌과 대변을 때맞추어 잘 나가게만 하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막힌 것을 열어서 잘 通하게 한다. 그러므로 下焦를 도랑과 같다고 한다²⁴⁷⁾.

三焦란 몸속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창자

247) 許浚 著：東醫寶鑑, 서울, 어강출판사, 1994, p. 363.

248) 李樞：上揭書, p. 491.

까지 包含하여 말아보는 기관이다. 가슴과 橫隔膜 위를 上焦라 하고 橫隔膜 아래와 배꼽 위를 中焦라 하며 배꼽 아래를 下焦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 三焦라고 한다(正傳).

三焦의 位置²⁴⁹⁾

上焦는 명치 아래에 있는데 橫隔膜 아래와 胃 윗구멍 사이에 있다. 이것은 받아들여 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는다.

中焦는 中脘 部位에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곳에 있는데 주로 飲食物을 消化시킨다(難經).

머리에서 명치 끝까지를 上焦라고 하고 명치 끝에서 배꼽까지를 中焦라고 하며 배꼽에서 발까지를 下焦라고 한다(海藏).

上中下 三焦의 氣는 하나로 되어 몸을 保衛한다. 三焦는 完全한 腑가 아니므로 形體는 없고 作用만 있다.

㉔ 胞

胞의 形態²⁵⁰⁾

胞를 赤宮, 丹田, 命門이라고도 하는데 男子는 여기에 精을 貯藏했다가 내보낸다. 婦人은 胞가 있기 때문에 妊娠을 하게 된다. 그러니 胞는 生命이 태어나는 根源이지 五行도 아니고 水도 아니며 火도 아니다. 이것은 自然의 作用을 달리 부른 이름이다. 즉 땅이 萬物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象徵한 것이다(東垣).

內經에 “胞는 陰에 位置해 있고 땅을 象徵하였기 때문에 奇恒之腑라고 한다.”고 쓰여 있다. 註解에는 “六腑와 特殊하게 다르다”고 쓰여 있다.

이 胞는 膀胱 속에 오줌을 담은 胞가 아

니다.

胞의 位置²⁵¹⁾

胎兒가 들어있는 곳을 子宮이라고도 하고 胞門이라고도 한다(東垣).

胞를 丹田이라고도 하고 關元이라고도 하는데 배꼽에서 아래로 3치 되는 곳에 있다. 그 둘레는 4치이다. 등뼈를 中心으로 양쪽 腎臟 사이에 붙어 있는데 가운데는 붉은 빛이며 왼쪽은 푸른 빛이고 오른쪽은 흰 빛이고 위는 누런 빛이고 아래는 검은 빛이다. 3치는 三光을 본받은 것이고 4치는 4철을 본받은 것이며 다섯가지 빛은 五行을 본받은 것이다(資生).

4) 三尸와 九蟲

① 三尸²⁵²⁾

三尸說은 道教에 關係되고, 그 治療法에 있어서는 中國醫學과도 關聯되어 있으며, 庚申信仰으로서 日本의 民山信仰과도 關聯되는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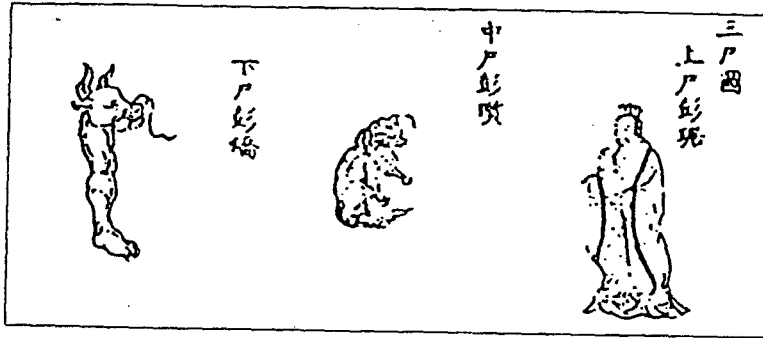
《中黃經》에는 “첫째는 上蟲인데 腦속에 있고 둘째는 中蟲인데 明堂에 있고 셋째는 下蟲인데 腹胃에 있다. 이거을 彭瑀, 彭質, 彭矯라고도 한다”고 쓰여 있다. 蟲들은 사람이 道를 닦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이 墮落하는 것을 좋아한다. 上田은 元神이 있는 곳인데 이 關門을 사람은 열지 못한다. 여기에 尸蟲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期限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만일 元神을 잡아서 本宮 위에 살게 하면 尸蟲은 저절로 죽고 生命은 安全하다. 이른바 한 구멍이 열리게 되면 온갖 구멍이 다 열리고 大關이

249)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63.

250)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68.

251)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368.

252) 許浚 著: 上揭書, p. 433.



〈三尸圖〉

通하면 온갖 뼈마디가 다 通하기 때문에 天真이 降靈해서 神靈하지 않으려 해도 神靈해지는 것은 그것이 神靈한 까닭이다(養性書)²⁵³⁾.

《포박자》微旨篇에서는 “三尸는 形體가 없으나 실은 靈魂이나 鬼神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는데도 죽으면 鬼神이 되어 제멋대로 밖으로 돌아다니고 祭祀를 지내 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庚申날에는 人體에서 밖으로 빠져 나가 하늘에 올라 司命(人命을 支配하는 神)에게 그 사람의 過失에 대해 報告한다. 또 부엌 아궁이 神도 그믐날에는 하늘에 올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罪狀을 報告한다. 그리고 罪가 많으면 記를 뺀다. 記란 300日이다. 罪가 적으면 算을 뺀데 算을 뺀데 算이란 3日을 말한

다”고 했다²⁵⁴⁾.

② 九蟲²⁵⁷⁾

지금의 條蟲, 回蟲, 蟯蟲과 같은 것이 있는데, 寄生蟲의 概念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²⁵⁸⁾

《東醫寶鑑》²⁵⁹⁾에서는 “모든 蟲은 다 飲食을 調節해 먹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비린 회나 생것을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처음에는 積이 생기고 그것이 오래되어 熱이 생긴다. 그러면 濕熱이 熏蒸하게 되어 痰과 瘀血이 뭉쳐서 五行의 氣가 變化하는 데 따라 여러 가지 괴상한 생김새의 蟲이 되는데 9가지가 있다.” “첫째는 伏蟲인데 길이가 4치……아홉째는 蟯蟲인데 생김새는 菜蟲 같으면서 아주 가늘고 작으며 大腸에서 산다.”라고 하여 九蟲의 원인, 이름과 그 생김

253) 許浚 著 : 上揭書, p. 405.

254) 吉元昭治 著 : 上揭書, p.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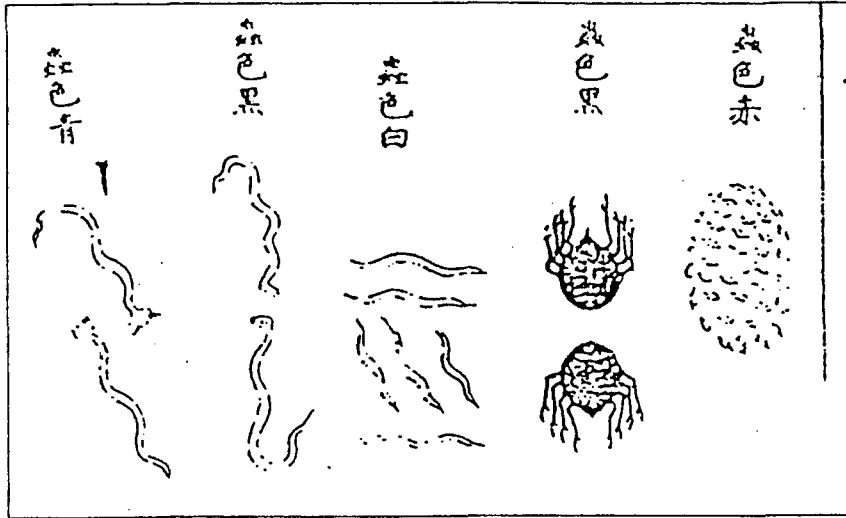
255) 都玟淳 著 : 上揭書, p. 134.

256) 柳華陽 著, 李允熙 옮김 : 懸命經, p. 246.

257) 許浚 著 : 上揭書, p. 434.

258) 都玟淳 著 : 上揭書, p. 136.

259) 許浚 著 :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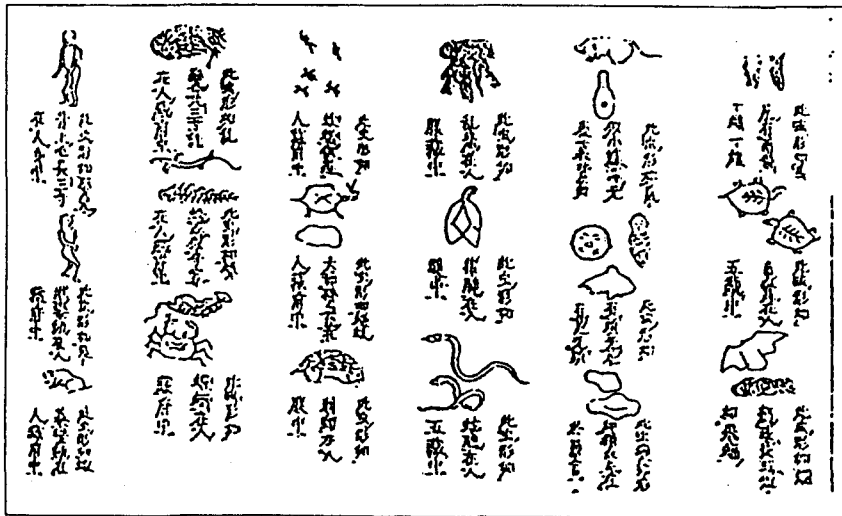
〈九蟲圖〉

새를 具體的으로 說明하였다.

蟲圖가 나와 있다²⁶⁰).

《太上除三尸九虫保生經》에는 三尸圖와 九

③ 傳屍²⁶¹⁾.



〈傳屍圖〉

260) 都玟淳 著: 上揭書, p. 136.

261) 許浚 著: 上揭書, p. 442.

現在の 結核症을 가리킨다. 九蟲 가운데 蝟蟲, 蛔蟲, 寸白蟲 이외의 六蟲은 六代에 걸쳐서 차례로 病을 가져다 주며 친숙까지 感染시키게 된다²⁶²⁾.

《東醫寶鑑》에서는 勞瘵를 傳屍²⁶³⁾라 하였고, 또한 그 생김새를 “瘵虫之形 或似蛻螂……若傳至三人則 如人形如鬼狀(得效)”²⁶⁴⁾라 하여 具體적으로 說明하기도 하였다.

《無上玄元三天心傳玉堂宗旨治傳屍勞蟲總法》에 九虫圖가 나와있다²⁶⁵⁾.

《經外奇穴圖譜》에는 傳屍穴이라는 名을 볼 수 있다²⁶⁶⁾.

Ⅲ. 考 察

內景은 道家 修練 方法에 있어서 入定²⁶⁷⁾ 하기 위한 方法, 혹은 內景²⁶⁸⁾에 이른 어떤 段階로 볼 수 있다. 이것은 意와 몸을 한 곳, 즉 丹田 및 各 臟腑에 합침으로 해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方法이다²⁶⁹⁾.

이 方法은 《慧命經》에 나와 있는 天目²⁷⁰⁾ 과도 그 內容이 類似한 점이 있어 서로 關聯性이 있음을 알 수 있고, 天目은 그 부위 상 上丹田과 거의 같은 部位이므로 天目과

內景과 上丹田 修練과는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內景이 解剖學的인 面 以外에 다른 方法의 解釋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方法으로 東醫寶鑑에 나와있는 三丹田, 三關, 五臟六腑, 三尸, 九蟲, 傳屍와 道家의 身神 등의 존재를 說明할 수 있다.

三丹田과 三關은 氣功修練 및 養生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러한 三丹田과 三關은 모두 經穴學的²⁷¹⁾으로 印堂, 膻中, 關元(陰交, 氣海, 石門)과 啞門, 脊中(至陽, 靈臺), 陽關(長強) 등 각각 該當하는 部位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經穴學的인 穴名에 비해 三丹田과 三關은 모두 그보다 養生 및 修練이라는 면에서 좀 더 包括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丹田이라는 그 자체는 精·氣·神을 모으거나 修練하기 위한 部位²⁷²⁾라는 의미가 더 크지만 經穴學的인 側面에서의 印堂, 膻中(혹은 氣海, 石門, 陰交)은 任脈上에 있는 經穴名으로 주로 上·中·下部의 疾患에 대한 治療²⁷³⁾ 方面에 利用된다고 볼 수 있고, 三關도 거의 비슷하여 修練時 督脈 部位에서 막힌 부분인 이곳을 疏通시켜 그 修練 水準 높이기 위한 關門²⁷⁴⁾이라

262) 都珖淳 著：上揭書, p. 137.

263) 許浚 著：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442.

264) 許浚 著：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442.

265) 都珖淳 著：上揭書, p. 137.

266) 都珖淳 著：上揭書, p. 137.

267) 呂光營 主編：上揭書, p. 99.

268) 呂光營 主編：上揭書, p. 99.

269) 呂光營 主編：上揭書, p. 99.

270) 呂洞賓 著, 李允熙, 高聖勳 共譯：上揭書, p. 32.

271)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84.

272) 柳華陽 著：上揭書, p. 144.

273)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4.

고 볼 수 있으나 經穴學的인 側面에서의 啞門(風府), 脊中(至陽, 靈臺), 陽關(長強)은 대체로 該當 部位의 疾患²⁷⁵⁾에 使用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五臟六腑는 內景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六腑의 모양이 실제 解剖學과는 다른점이 있다. 예를 들면 《東醫寶鑑》²⁷⁶⁾에 “知識이 낮은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7個 있고 털이 3個 있다. 知識이 普通인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5個 있고 털이 2個 있다. 知識이 얕은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3個 있고 털이 1個 있다. 普通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2개 있고 털이 없다. 우둔한 사람은 心臟에 구멍이 1個 있는데 그나마도 몹시 작다. 구멍이 없는 것은 精神이 드나드는 門이 없는 것이다. 心臟에는 구멍이 7個와 털 3個가 있는데 7個의 구멍은 北斗七星에 相應하고 3個의 털은 3태성에 相應하기 때문에 마음이 至誠하면 하늘과 通한다.” 라는 것은 그점을 가리킨다.

身神을 부르는 과정도 五臟六腑를 內景과 類似한 점이 있다.

즉, 《太平經》에서 “사람이 없는 방에서 臟色에 의해 五臟神의 形象을 그리며 四時의 氣에 應해 이것을 창외 빛속에 걸고 마음속

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五臟神이 와서 도와 주어 어떤 病이라도 낫게 한다.”²⁷⁷⁾라는 점을 보면 五臟六腑를 內景하는 것과 身神을 부르는 過程이 類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方法에 있어서는 前者의 경우 意를 集中해야 하는 대상이 五臟神의 形象이고, 後者의 경우 意를 集中해야 하는 대상이 五臟六腑라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身神에 관한 것은 養生과 더불어 治療의 意味도 包含하고 있다²⁷⁸⁾.

三尸와 九蟲, 傳屍도 內景時에 볼 수 있다는 점²⁷⁹⁾에서 身神의 경우와 비슷한데, 또한 寄生蟲과 類似하여 實質的 疾患에 좀 더 가까와졌다고 볼 수 있다.

三尸는 寄生蟲學과 民間信仰의 中間 段階로 볼 수 있는데, 《中黃經》에 “蟲들은 사람이 道를 닦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이 墮落하는 것을 좋아한다”²⁸⁰⁾라든가, 《抱朴子》에 “三尸는 形體는 없으나 실은 靈魂이나 鬼神같은 것이다.”²⁸¹⁾라고 해서 실제 寄生蟲과는 좀 다르다.

九蟲은 寄生蟲學에 좀 더 가까와져서 現在의 寄生蟲과 거의 비슷하다²⁸²⁾.

《東醫寶鑑》²⁸³⁾에서는 “모든 蟲은 다 飲食을 調節해 먹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비린 회나 생것을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처음에는 積이 생기고 그것이 오래되어 熱이 생긴다. 그러면 濕熱이 熏蒸하게 되어 痰과 瘀

274) 柳華陽 著: 上揭書, p. 106.

275) 楊繼洲: 校訂註解 針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58.

276)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298.

277) 吉元昭治 著, 都玟淳 譯: 上揭書 p. 73.

278) 都玟淳 著: 上揭書, p. 132.

279) 內景이 몸안의 一體의 象을 觀察한다는 意味를 살려서 類推한 것으로 直接的으로 三尸와 九蟲을 內景 혹은 內視했다는 文獻은 發見 못했다.

280) 吉元昭治 著, 都玟淳 譯: 上揭書, p. 389.

281) 吉元昭治 著, 都玟淳 譯: 上揭書, p. 389.

282) 都玟淳 著: 上揭書, p. 76.

283)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406.

血이 뭉쳐서 五行의 氣가 變化하는 데 따라 여러 가지 괴상한 생김새의 蟲이 되는데 9가지가 있다.”, “첫째는 伏蟲인데 길이가 4치……아홉째는 蟻蟲인데 생김새는 菜蟲 같으면서 아주 가늘고 작으며 大腸에서 산다.”라고 하여 九蟲의 原因, 이름과 그 생김새를 具體的으로 說明하였다.

傳屍는 현재 結核病과 비슷하다. 《東醫寶鑑》에서는 勞瘵를 傳屍²⁸⁴⁾라 하였고, 또한 그 생김새를 “瘵虫之形 或似蛻螂……若傳至三人則 如人形如鬼狀(得效)”²⁸⁵⁾라 하여 具體的으로 說明하기도 하였다.

《東醫寶鑑, 集例》에서는 “道家以清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針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²⁸⁶⁾라 하였다. 그러나 現 韓醫學에서는 道敎的인 思想이 用語使用과 內容의 表現方法 그리고 具體的인 實行에 있어서 差異가 있어 쉽게 統合되지 않은 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氣功 및 道家의 方面에 바라본 內景에 관한 研究는 韓醫學의 研究方向에 새로운 分野를 提示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이 글에 나와 있는 五臟神이나 三尸, 九蟲, 傳屍 그리고 五臟六腑圖의 모습은 解剖學的인 모습과 차이가 있거나 혹은 存在조차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現時點에서 글을 써 나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內景에 관한 이와같은 다른 方面의 研究는 이를 조금이나마 理解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其他 다른 道家의 用語나 內容을 既存 韓醫學에 接木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結 論

內經과 身形에 대한 韓醫學과 道敎醫學의 關係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一. 內景이라고 하는 것은 解剖學적인 部分과 道家의 上丹田 修練인 內視를 包含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一) 內景의 辭典의 意味 만으로도 內景은 內視의 意味를 包含하고 있다.

(二) 대부분의 文獻에서 內景은 氣功 修練時 思惟活動을 內向하여 意로써 內部 臟腑組織을 觀察하는 것이라고 記述되어 있다.

二. 身形에 대한 韓醫學과 道敎醫學의 觀點은 人體를 小宇宙로 봤다는 점에서 거의 類似하다.

三. 三丹田과 三關의 위치는 經穴學的으로 각각 印堂, 臍中, 關元(陰交, 氣海, 石門)과 啞門, 脊中(至陽, 靈臺), 陽關(長強)과 類似하다.

四. 身神을 부르는 過程은 氣功修練時 內景의 過程과 類似하다.

(一) 身神을 부르기 위해서는 意를 該當身神에게 集中해야 하는데, 이것은 內景時 該當臟器에 意를 集中시키는 것과 類似하다.

(二) 五臟神은 實際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記錄이 남아 있다.

五. 道家에 관한 各種 文獻에 說明되어 있는 臟器의 模樣은 心臟의 竅와 毛같이 解剖學에서는 存在하지 않는 構造物이 있거나, 外形에서 解剖學的인 것과 差異가 있는 경우가 있다.

六. 三尸, 九蟲, 傳屍는 寄生蟲과 관계 있다.

284) 許浚 著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442.

285) 許浚 著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442.

286) 許浚 著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59.

參考文獻

1. 王琦 外 編著：黃帝內經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1.
2. 金完熙，崔達永 共編：臟腑辨證論治，서울 成輔社，1990.
3.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85.
4. 呂光榮 主編，吳家駿 副主編：中國氣功辭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
5. 崔昌祿 옮김：黃庭經，서울，동화문화사，1993.
6. 葛洪 著，昔原台 譯註：真本內功秘傳 新譯 抱朴子，서림문화사，1995.
7. 김기옥 著：의료기공，서울，도서출판 단비，1994.
8. 許浚 著：東醫寶鑑，서울，驪江出版社，1994.
9. 張和 著：中國氣功學，五州出版社.
10. 楊繼洲：校訂註解 針灸大成，서울，大成出版社，1990.
11. 凌耀星 主編：難經校主，서울 一中社，1992.
12. 伍守陽 著，昔原台 譯註：真本內功秘傳 註譯 仙佛合宗，서울，서림문화사，1994.
13. 呂洞賓 著，李允熙 高聖勳 共譯：太乙金華宗旨，서울，驪江出版社，1994.
14. 柳華陽 著，李允熙 譯：慧命經，서울，驪江出版社，1994.
15. 伍守陽 著，昔原台 譯：天仙正理，서울，서림문화사，1994.
16. 許浚：東醫寶鑑，서울，驪江出版社，1994.
17. 吉元昭治 著，都珖淳 譯：道教와 不老長生醫學，서울，圖書出版 열린책들，1992.
18. 柳華陽 著，柳正植 譯：金仙謠 驪江出版社，1994.
19. 宋点植 編：醫學輯要，서울，文耕出版社，1991.
20. 楊青藜 著，金仙學會 옮김：大成捷徑，서울，驪江出版社，1995.
21. 허천우 著：金丹의 길，서울，驪江出版社，1994.
22. 皇甫謐：針灸甲乙經，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23. 楊維傑 編著：黃帝內經靈樞譯解，臺北，台聯國風出版社，民國六十五年.
24. 全國韓醫科大學 針灸，經穴學教室 編著：針灸學，서울，集文堂，1991.
25. 張介賓 著：類經圖翼，서울，大成出版社，1990.
26. 顧美華 編輯：氣功·養生輯書，상해，古籍出版社，1990.
27. 林中鵬 主編：中華氣功學，北京，體育學院出版社，1989.
28. 楊維傑 編著：黃帝內經素問譯解，臺北，台聯國風出版社，民國六十五年.
29. 李挺 著：蔡仁植 國譯：國譯編註醫學入門，서울，南山堂，1988.
30. 許浚 著：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0.
3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著：재편집 동의학사전，서울，도서출판 가치，1990.
32. 浙江省氣功科學研究會，氣功雜誌編輯部 主編：中國氣功四大經典講解《黃庭內景經》，浙江省，浙江古籍出版社.
33. 陣夢雷 編著：醫部全錄，서울，大成出版社，1990.